

2020 문화계 결산 <2> 공연

5·18 40주년 기념 무대... 온라인 생중계로 관객과 소통

올해 코로나 19로 공연장 문을 닫었지만 공연은 계속됐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유스퀘어 문화관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관객과 만났으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도 곳곳에서 열렸다.

특히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의 곡이 연주됐으며, 피아니스트 조성진, 백건우 등 클래식 스타들과 가수 선우정아, 국악인 이자람 등도 만날 수 있었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문화회관)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GAC 나옴 TV'를 개설하고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공연을 이어갔다. 기획공연엔 비롯해 광주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광주국악상설공연 등을 꾸준히 선보여 관객과 소통했으며, 오프라인 공연의 끈도 놓지 않았다.

기획공연 무대에는 피아노 연주자 윤한, 작곡가 정재형, 뮤지컬 배우 카이, 바리톤 이응광 등이 올라 다양한 곡을 들려줬다. 또, 소리꾼 이자람은 해명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판소리로 재창조한 공연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으며, 피아니스트 백건우·조성진 무대는 일찍이 매진을 기록했다. 이밖에 WOS 비르투오소 챔버 오케스트라, 국악연주가상자루, 피아니스트 김선아 등도 출연했다.

광주시립예술단체는 5·18 40주년을 주제로 한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콘서트 오페라 '박하사랑'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랑'을 원작으로 했으며, 80년 5월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투입된 한 남자의 사랑

베토벤 탄생 250주년 연주 다채

서울·부산 극단 협업 5·18 연극 시립예술단, 코로나 극복 콘서트 '개관 85주년' 광주극장 영화제

과 파멸을 다룬다. 시립발레단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광주 시민의 바람을 담은 창작발레 '오월바람'으로 관객과 만났으며, 시립합창단은 올해 첫 공연으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추념음악회 '평화를 위한 기원'을 선보였다.

이와함께 시립극단은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 '연극적 환상' 등을 무대에 올렸으며, 시립발레단은 '잡자는 숲속의 미녀'를, 시립오페라단은 '라보엠'으로 관객과 만났다.

시립예술단은 이밖에도 ACC광장, 진월동 푸른길 등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 '코로나 극복 힐링 콘서트'를 진행했고, 시립합창단은 전통국악부터 퓨전국악, 사물놀이 등을 선보인 '국악상설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올해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이하 유스퀘어)에는 첼리스트 이정란, 플루티스트 윤혜리, 피아니스트 임주희·손민수·김정원·김다솔 등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이 올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유스퀘어 역시 2018년부터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유스퀘어 클래식'을 활용,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수준급 클래식 공연을



백건우 조성진

매주 실황으로 선보여 관객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아울러 소프라노 조수미가 극찬한 하모니스트 박종성 리시타들과 피아니스트 김정원 리시타들 등으로 관객과 소통했다.

광주문화재단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광주'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광주'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서울, 고양, 부산, 전주에 이어 광주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으며, 총 1만4000여 관객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베토벤의 곡이 울려 퍼졌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송년 음악회에서는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피아노 협주곡 4번'을 협연했으며, 피아니스트 김준현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연주의 시작을 알리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리시타를 시리즈'를 진행했다. 바리톤 박홍우와 피아니스트 신수경은 '베토벤 가곡의 밤'을 열었고,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지역 공연계는 코로나 19로 공연장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했다. 사진은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뮤지컬 '광주'. <광주문화재단 제공>

미, 리베르 콰르텟 등 지역 음악단체들도 베토벤의 곡을 연주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 연극계는 5·18을 주제로 한 작품을 비롯해 서울·부산 등 다른 지역의 극단과 협업해 다채로운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기억을 꺼내 세상에 담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민주·인권·평화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들을 선보였다. 극단 바람폭의 '부러진 날개로 날다'를 시작으로 충북 극단 청년극장의 '숙희재판', 광주 극단 터의 '금복음악다방' 등이 무대에 올려졌다.

씨어터연비람이 진행하는 '연극 있다-있다 페스티벌'에서는 서울·부산·춘천·구미 등의 극단이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담은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이밖에 다양한 기획전과 영화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올해 개관 85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은 '개관 85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열고, 1960년대 작품부터 최근 화제작 16편을 스크린에 올렸으며, 스위스 영화배우 브루노 간츠를 위한 '브루노 간츠 추모 특별전'도 열렸다. 또, '제9회 스웨덴 영화제', '제11회 광주여성영화제' 등도 진행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 '올해의 예술후원인 대상' 수상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사진)명예관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 올해의 예술후원인 대상' 개인기부 부문에 선정됐다. 문화예술위원회는 하 명예관장에 대해 '1993년부터 1만 2000여점의 작품을 기부해온 재일교포 출신 미술컬렉터로서 대한민국 미술품 기증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하 명예관장은 광주시립미술관에 2603점을 비롯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조선대학교미술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등에 1만 2000여점의 미술품과 유물을 기증했다. 하 관장은 또 1982년부터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회관 건립 등 장애인 돕기에 앞장서 왔으며, 50여 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강제 연행되어 사망한 무연고 노동자 50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위령제를 지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예인방 '못생긴 당신', 대한민국연극대상 베스트작품상

임은희씨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나주에서 활동하는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이 지역 연극의 힘을 보여줬다.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이사장 김진호)의 연극 '못생긴 당신' (사진)이 제13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베스트작품상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엄마의 강'으로 작품상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쾌거다. 또 '못생긴 당신'에서 엄마역을 맡아 열연한 임은희(나주연극협회장)씨는 '자랑스러운 연극인상'을 수상, 경경사를 맞게 됐다. 특히 임 씨의 남편 김진호씨가 지난 2014년 같은 상을 받아 부부 수상이라는 영광스러운 기록도 거머쥐었다.

송수영이 연출을 맡은 '못생긴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생선장수 아내 덕자와 난봉꾼에 바람둥이인 남편 오철의 전투같은 삶을 그린 작품이다. 극 중에서 딸기 알환자의 삶을 살아가는 덕자를 연기한 임 씨는 전남연극제 연기대상과 연기상을 16회 이상 수상한 이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강렬한 내면연기를 통해 '익숙하기 때문에 잊고 살아가는' 세대에 날카로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사진동호회 '상상클럽', '행복을 찾아서' 전

28일까지 광주시청 시민숲

광주시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 21명으로 구성된 사진동호회 '상상클럽'(회장 송상훈) 제6회 정기 회원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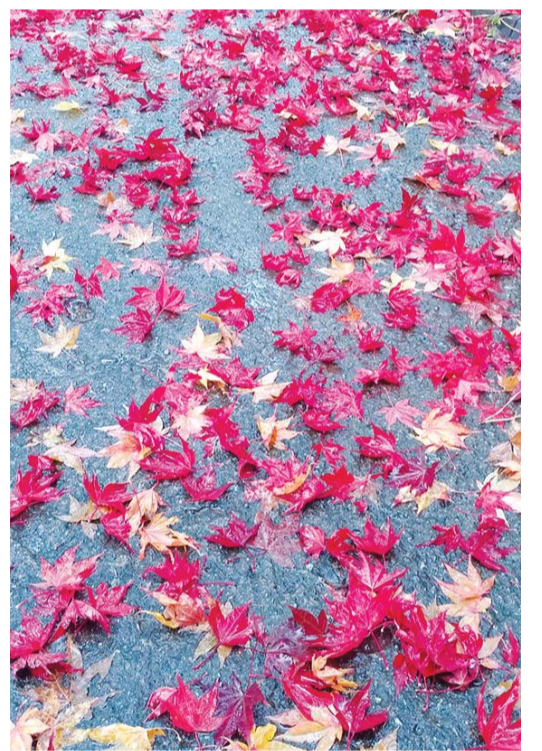
'행복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회원들이 찍은 작품 31점을 전시 중이다.

이번 회원전에서는 강동희 작 '연꽃의 향연', 김옥순 작 '추억의 가을길', 김준 작 '가을, 까맣없이 외로울 때' 등 아름다운 우리 산천의 사계절을 담은 풍경 사진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박정준·이재원·최성훈 회원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2015년 창립한 상상클럽은 '시각장애인의 버킷리스트' 등 다양한 주제로 회원전을 열었다.

24일부터는 '시각장애인들의 아모르파티(Amor fati)'라는 제목의 동영상 제작, 유튜브에 공개하며 2021년 1월31일까지는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한다.

/김미은 기자 mekim@



박선영 작 '단풍 발자국을 남기다'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